

publishing news & news

제57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운영 및 참가 신청 접수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이하 출협)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사의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에 따라 한국관이 대폭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가사는 한국관 내에 한국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자사 및 자사 도서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 출판사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향후 자사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며, 국제출판계 동향 및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및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 참가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 팩스(02-738-5414) 또는 이메일(booklee@kpa21.or.kr)로 출협 국제부에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선반 4단 및 기본전시비품 포함, 최소 2미터 사용)는 출협 회원사는 100만원(1미터 서가), 비회원사는 120만원(1미터 서가)이다.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출협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ww.kpa21.or.kr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 공포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되고, 6개월 후인 7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및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제정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예술행정 체계 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제23조의4)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제23조의11) ▶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 명문화(제23조의19) ▶ 기타,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지원기구로서 확대하고, 지원기구로서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 규정(제4조)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도서·문화전용상품권에 대하여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 강구(제16조의2) 등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심)에서 이달의 읽을 만한 책(2월분)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열두 명의 연인과 그 옆 사람(윤대녕 지음, 이룸, 값 9,700원) ▶ 서울(답사여행의 길잡이 15)(한국문화유산답사회 지음, 돌베개, 값 18,000원) ▶ 보살예수(김희성 지음, 현암사, 값 8,500원) ▶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마커스 놀랜드 지음·심달섭 옮김, 시대정신, 값 12,000원) ▶ 2010 대한민국 트렌드(LG경제연구원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값 12,000원) ▶ 상식, 인권(토머스 페인 지음·박홍규 옮김, 필맥, 값 17,000원) ▶ 시간을 찾아서(최덕근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값 10,000원) ▶ 한국영화를 말한다(한국영상자료원 지음, 이채, 값 18,000원) ▶ 거인 - 신과 인간의 버림받은 아버지(타임라이프 지음·권민정 옮김, 분홍개구리, 값 17,500원) ▶ 해를 삼킨 아이들(김기정 글·김환영 그림, 창비, 값 8,000원)

'출판사 양극화와 CD(contents provider)

전환 가속화'

한국출판학회 제16회 정기학술대회

앞으로 출판사 대형화와 소형화의 이중적 구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콘텐츠 공급자로서 변신을 꾀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출판학회 제16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노병성 교수(협성대 경상학부·사진)는 '도서출판 환경의 현실과 미래'란 발제를 통해 "스타가 아닌 저자들을 위한 자비출판 대행사가 늘어나고, 외국자본과의 제휴, 저작권 수출 다양화·대량화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며 이것이 전망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한국출판의 현실 진단과 미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노교수는 토머스 울의 도서출판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APDC(작가-출판인-유통-소비자)모델을 제시, 각 단계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특히 유통합리화를 위해 서점 및 유통기구의 대형화와 중소서점의 전문화·체인화·정보화를 통한 유통체계 합리화와 네트워크화, 유통프로세스의 정보화, 경영관리부문의 시스템화를 주문했다. 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와 필요에 따른 구입을 늘리고, 도서관 이용을 줄이는가 하면 세대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독자의 성격변화에 맞는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도서출판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두식 혜전대 교수의 '온라인 e-book의 개념 재정립과 사업 다각화',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 교수의 'e-book을 넘어 U-book에의 지향' 제하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출판인회의 신임회장

김혜경 푸른숲 대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월 3일 한국출판인회의 회관 대강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

의 4대 신임회장에 김혜경 푸른숲 대표를 선출했다. 김 회장은 출판인회의 부회장, 한국전자책컨소시엄 회장, 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청주시

직지 세계 알리기

청주시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세계에 알리고 청주를 '직지문화산업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전시회와 공연, 학술회의, 체험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 청주직지축제'를, 5,6월경에는 '직지찾기 국제 사이클 대회'를 치른다. 9월에는 '직지의 날'을 지정, 지난해 4월 유네스코로부터 승인받은 제1회 직지상 시상식을 가짐으로써 세계 기록유산 보존 등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기릴 방침이다.



한국문화도서관

시문학 100년 자료 정리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인 한국문화도서관은 한양대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한국 시문학 100년간의 자료를 모은 '한국 시문학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도서관이 전송권을 확보한 문인들의 문학작품집 20여만 권 가운데 한양대가 소장하고 있는 시문학 자료들을 입력시켜 서비스하게 되며, 한국문화도서관이 수집한 시자료들은 입력 후 한양대 도서관에서 영구 보존하게 된다. 향후 미국의 UCLA 대학, 하와이 대학의 동서문화센터, 영국 런던대학의 SOAS, 뉴질랜드의 빅토리아 대학,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www.kll.co.kr

제7차 세계 만화인 대회

9월 부천시 개최

한국만화가협회가 주최하고,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주관하며, 부천시의 문화관광부, 경기도가 후원하는 가운데 세계 만화가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7차 세계 만화인 대회'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와 그 일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만화작가들의 정보교류와 작품교류,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30여 개국에서 300여 명의 만화작가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만화 원화전·작품전시와 공연·학술행사·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만화인 대회는 지난 1996년 우리나라와 일본 만화작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순수작가대회로 그해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만화인 대회'란 명칭으로 처음 열린 데 이어 서울과 대만, 홍콩, 일본 요코하마에서 잇따라 개최된 뒤 지난해 명칭을 '세계만화인 대회'로 격상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소천아동문학상

신인상 제정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소천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유경환)는 오는 2006년부터 신인상을 제정, 선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인상은 신인과 등단한 지 10년 이내 작가를 대상으로 미발표 창작동화에 시상하며 첫 번째 신인상의 작품 접수는 2006년 1월 31일 마감한다. 상금은 500만 원이며, 당선작은 책으로 펴내고 인세는 따로 지급한다.

문의전화 (02) 7075-326

계간 <동서문학>

35년 만에 중단

계간 문예지<동서문학>이 2004년 겨울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됐다.

이는 발행인의 작고와 7년 전 설립한 한국현대문학관 운영 등으로 모 그룹의 자금지원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동서문학상'도 제17회 수상자(시문태준, 소설가 배수아)를 끝으로 그 맥이 끊길 전망이다.

<동서문학>은 파라다이스그룹 전략원 회장이 1970년 창간해 지난해 겨울호까지 만 35년간 통권 255권을 발행했다.

울산 남부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울산 남부도서관이 최근 공공도서관으로는 처음으로 영아독서운동인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남부도서관은 북스타트 운동 확산을 위해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1층에 30평 규모의 영·유아 자료실을 만들고 6,000여 권의 영어책·동화책·전집·사전류와 북스타트운동 한국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영·유아 도서목록을 비치했다. 7살 미만의 아이나 7살 이상이라도 부모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회원가입을 하면 책을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지자체, 보건소, 도서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북스타트한국위원회 홈페이지의 '북스타트 참여 안내'로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북스타트한국위원회 (02) 3675-8782

남부도서관 (052) 260-7697

www.bookreader.or.kr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 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심)가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 도서' 20종을 선정, 발표했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도서는 2001년부터 문학, 역사 등 각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의 기본 소양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2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모비 딕(허만 멜빌 지음) ▶ 장길산(전12권, 황석영 지음)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일란 쿤데라 지음·이재룡 옮김) ▶ 혼불(전10권, 최명희 지음) ▶ 시와 진실(피테 지음) ▶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전4권, 아르놀트 하우저 지음·백낙청 외 옮김) ▶ 다시 찾는 우리 역사(한영우 지음) ▶ 사기(사마천 지음) ▶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박석무 지음) ▶ 강의(신영복 지음) ▶ 서양철학사(러셀 지음) ▶ 명상록(아우렐리우스 지음) ▶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로버트 달 지음·박상훈 외 옮김)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슈페터 지음·이영재 옮김) ▶ 개혁의 뒷(장하준 지음) ▶ 노동의 미래(앤소니 기든스 지음·신광영 옮김) ▶ 문명의 공존(하랄트 윌러 지음·이영희 옮김) ▶ 게놈(매트리들리 지음·하영미 외 옮김) ▶ 인간등정의 발자취(제이콥 브로노우스키 지음·김은국 외 옮김) ▶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지음·김은영 옮김)